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중생 사랑



新 불교사자성어

⑩ 무연자비(無緣慈悲)

'무연자비(無緣慈悲)'는 아무런 연고나 관련성이 없이 베푸는 자비(보시, 희사, 사랑 등)를 뜻한다.

우리는 대개 어떤 인연 관계나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 즉 연고가 있는 특정인들에게 선심(善心)이나 자비를 베푼다. 그러나 무연자비는 그런 관계성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 아무런 연고나 인연 관계가 없이 베푸는 자비, 목적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자비로서 불특정 다수 즉 일체중생들에게 베푸는 자비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자비가 무연자비(無緣慈悲)이다.

불교의 자비, 가톨릭과 기독교의 사랑, 인도 바가바드 기타의 박티(Bhakti -信愛)는 모두 순수한 무연자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인간으로서 이런 자비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한 예로 어머니가 자식에게 쏟는 마음, 정성, 사랑, 보살핌은 무연자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가성은 없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바람이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모두가 그랬고, 요즘 시대의 엄마들도 대부분 그럴 것이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쯤에서 내가 13살 때 어미 새를 생포했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6월에서 7월이 되면 새가 새끼를 부화한다. 새끼들이 '짹짹' 거리면서 막 날려고 할 때였다. '어미 새, 새끼 새' 할 것 없이 생포하기 위하여 몇 시간을 쫓아다니기도 하는데, 시골에는 '할미새'라고 하얀색 새가 많이 있었다.

나는 새끼보다는 어미 새를 생포하기 위하여 새끼를 이용했다. 작전(作戰)은 새끼 새를 30cm 깊이의 토롱 속에 넣어두고는 방안에서 문틈으로 지켜보다가 어미가 토롱 속으로 들어가면 생포할 작정이었다. 어미는 '짹짹' 거리고 울어대는 새끼를 구하기 위하여 수없이 토롱 속으로 들락거렸다. 그 때마다 총알보다도 더 빠르게 나가서 구멍을 막았는데, 1~2초 사이에 놓치곤 했다. 이러기를 수차례, 결국 어미 새는 내 손에 잡혔다. 새도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었지만 무언가 감동을 느꼈다.

〈열왕기〉를 보면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우기다가 솔로몬을 찾아가 판정을 의뢰하는 이야기가 있다. 솔로몬왕은 두 여자를 불러놓고 그 앞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 주라고 명령한다.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준다.'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이다. 병사가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그 중 한 여인이 아이 위에 엎드렸다. 솔로몬왕은 '이 아이를 이 여자에게 주어라'고 명령한다. 그 여자가 곧 아이의 엄마였다. 참으로 솔로몬의 명석한 지혜였다.

불교가 종교적 실천 원리로서 강조하는 것이 '자비와 사랑'이다. 이것은 종교의 중요한 역할과 가치이기도 하다. 특히 무연자비는 중생에 대한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카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자애경〉에는 "모든 중생이 안락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는 문구에 이어 "살아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행복하라. 움직이는 것이든 움직이지 않는 것이든,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중략) 이미 태어나 있는 것이든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것들까지 행복하라. 행복하라"는 간절한 구절이 있다.

이것은 자비의 대상이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 더 나아가서는 나무나 식물에까지 적용시킨 것이다. 오늘날 지구가 온난화, 쓰레기 등으로 심각한 환경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인간의 무지와 욕망이 만들어 낸 최악의 결과물이다.

부처님이 모든 중생에게 차별 없이 베푸는 자비는 절대 평등의 자비, 무연자비이다. 무연자비는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베푸는 자비로서, 치열한 경쟁,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궁극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 십회향품에는 구도자가 해야 할 과제로서 보살행(자비)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생이 육체를 달라고 하면 육체를 주고, 목숨을 달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주라고 설하고 있다. 목숨까지 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분쟁, 다툼은 정지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차별 없는 무한한 자비, 순수한 자비에 대한 상징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위대한 대장장이의 금 변색 안돼



격절록 강설

⑩ 백장불자화 2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奇怪 諸禪德 (也不免遭他點檢) 如今列其派者甚多 (莫欺我兒孫) 究其源者 極少 (雪竇從來點胸) 總道百丈於喝下大悟 還端的也無 (自是他把不住) 然刀刁相似 魚魯參差 (曹溪波浪如相似 無限平人被陸沈) 若是明眼漢 瞞他一點不得 (明眼漢正好瞞) 只如 馬祖道 你他後開兩片皮 將何為人 (人將財試 金將火試) 百丈竪起拂子 (機境未忘) 為復如蟲禦木 (正是) 為復啐啄同時 (夢見) 諸人要會三日耳聾麼 (雪竇還會麼) 大冶精金應無變色 (錯 下名言不是今日)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기이하고 괴상하구나, 여러 선덕(禪德)이여! [역시 그(설두)의 점검을 면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갈라져 나온 무리가 매우 많지만 [내 자손들을 속이지 말라.] 그 근원을 참구하는 이는 극히 적구나! [설두는 지금까지도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모두들 백장이 (마조의) '할(喝)!' 아래 대오(大悟)했다고 말하지만, 단적인 것(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스스로도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도(刀)와 조(刁)가 비슷하고 어(魚)와 로(魯)는 가지런하지 않지만, [조계의 물결이 이와 같다면 무한한 보통 사람들이 땅에서 침몰될 것이다.] 만약 눈 밝은 사람이라면 한 점도 속이지 못할 것이다. [눈 밝은 이가 속이기에 딱 좋은 법이다.] 그건 그렇고, 마조가 너는 이후에 두 입술을 나불거리면서 뭘 가지고 사람을 위할 것인가?' 라고 하자,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시험하고, 금은 불을 가지고 시험한다.] 백장이 불자를 세운 것은 [기경(機境)을 잊지 못했군.]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어 우연히 문자를 이룬 것인가? [맞다.]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동시에 쫀 것인가? [꿈에서나 보겠는가.] 여러분은 3일 동안 귀 먹은 것(三日耳聾)을 알고 싶은가? [도리어 설두는 아는가?] 위대한 대장장이가 정련한 금이라면 마땅히 색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착(錯, 틀렸다)! 그러나 명언名言을 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다.]

[評唱 1]

師云. 百丈和尚 侍奉馬祖二十餘年 最得馬祖提誨. 此一則因 叢林謂之再參馬祖話 人多舉得不同 然宗師家 只拈他著力處.

백장 화상(和尚)은 마조(馬祖)를 20여 년 시봉하면서 마조가 이끌어준 가르침(提誨)을 가장 잘 얻었다. 이 일칙 인연(一則因)을 총림에서는 '재참마조화(再參馬祖話)'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론했어도 서로 같지 않기에 종사들은 다만 저 착력처(著力處, 힘을 얻은 곳)만 염(拈)할 뿐이다.

---

*선덕(禪德)은 선리(禪理)에 깊이 통한 덕망 높은 승려를 뜻하며, 고덕(古德)이라고도 한다.

*어로(魚魯)는 어로불변(魚魯不辨)의 준말로 어(魚) 자와 노(魯)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무식함을 비유한다.

*참치(參差)는 참치부제(參差不齊)의 준말로, 원 뜻은 길고 짧고 들쭉날쭉하여 가지런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여충어목(如蟲禦木)은 여충어목 우이성문(如蟲禦木 偶爾成文)의 준말로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었는데 그 갉아먹은 흔적이 우연히 글자가 된 것과 같다는 뜻이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⑩ 믿음 편 10

붓다 그리움서 시작된 불탑 신앙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가 남긴 삶의 흔적들을 더듬어본다. 그를 추억하고 싶기 때문이다. 때론 함께 자주 갔던 공원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있기도 하고, 미치도록 보고 싶을 때는 사진이나 유품을 꺼내놓고 펑펑 울기도 한다.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49재(齋)를 지내기도 하고 떠난 날이 다가오면 제사를 모시기도 한다. 이렇게 고인을 추억하면서 산 자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런데 떠나간 이의 사진이나 그림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떨까? 무척이나 아쉬울 것이다. 이때는 무덤을 찾거나 그의 체취가 배어있는 유품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러한데, 위대한 성인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석가모니 붓다가 바로 그랬다. 붓다가 열반에 든 후 사람들은 그를 추억하고자 했으나, 그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나 불상은 만들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위대한 성인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전통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붓다를 추억했다.

붓다는 80세의 나이에 열반에 들었다. 그때 붓다의 유훈에 따라 재가자들이 다비식을 거행했는데, 여덟 섬 너 말의 사리(舍利)가 나왔다고 한다. 다비식에 참석한 여덟 나라의 임금들은 서로 붓다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사리를 자기네 나라로 모시겠다고 다투었다. 그러다가 결국 공평하게 여덟 등분으로 나누어 각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탑을 세우고 그 안에 사리를 봉안하였다.

물론 붓다의 직접적인 숨결이 남아있는 가사나 발우 등도 그를 추억하고 숭배하는 주요 물건이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설법을 상징하는 진리의 수레바퀴인 법륜(法輪) 등도 그를 추억하는 상징물이었다. 붓다의 사리를 모신 탑이 세워지고 난 후에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 꽃과 향 등으로 예경하고 진리의 스승을 추억하였다. 불탑이 이제 신앙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당시 탑은 오늘날과 달리 사원 안에 있지 않았다. 탑이 사원으로 유입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절은 비구, 비구니들이 관리하였고 탑은 별도의 장소에서 재가자들이 운영하였다. 공부와 수행의 공간인 사원과 붓다의 사리를 모신 탑이 각자 독립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싶으면 절을 찾았고, 그가 그리울 때면 탑을 찾아가 추모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

이처럼 자유로운 불탑신앙이 가능했던 것은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소카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인도 전역에 8만 4천의 탑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순례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휴게소를 만드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오늘날로 보자면 국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수많은 불탑을 조성한 것인데,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불교에서 그를 전륜성왕(轉輪聖王), 즉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성스러운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인도 전역에 불탑이 조성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지를 순례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다. 그들은 탑에 꽃과 향, 일산 등의 공양물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저마다의 소망을 빌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참배객들에게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로 보자면 종교문화해설사 역할을 한 셈인데, 그들이 곧 법사(法師)의 원형이다.

붓다는 자신의 장례를 승려가 아닌 재가자에게 맡겼다. 그들은 불탑을 조성하여 붓다의 사리를 모시고 추모하였다. 그리고 훗날 불탑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붓다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는데, 그것이 곧 대승불교 운동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불탑은 대승불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장례를 재가자에게 맡긴 붓다의 마지막 유훈이 그저 우연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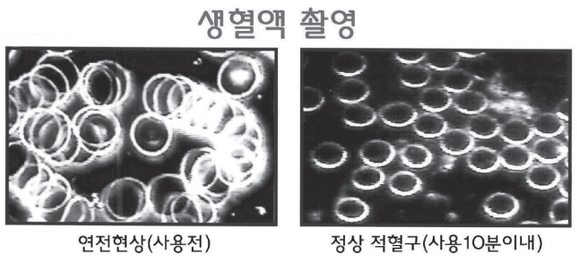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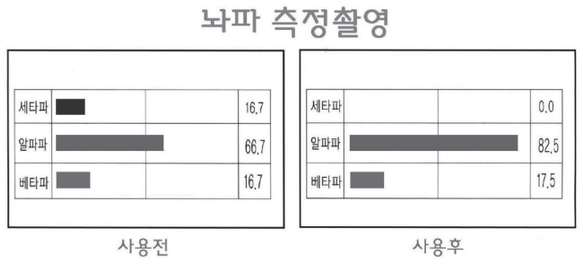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